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새 포도주가 되는 교회 성경: 누가복음 5장 36-39절

Tag:

36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3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38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9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눅5:36-39)

우리 교회 표어 가운데
새 시대, 새 물결, 새 교회
가 있다.

다분히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고 지은 이름이다. 현대의 트렌드를 잘 읽는 교회가 되자.

100세 시대 (곧 120세 시대→500세 시대, 천년왕국은 1000세 시대)

청년 준비 시대 40대 출세 시대.

영적 전쟁의 시대

교회에서는 새로운 가치관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됨.

교회이름이 ‘새 부대가 되는 교회’라는 교회도 있다.

새 부대 보다는 새 포도주가 우선이다.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포도주는 숙성식품이라, 부대에 담아 두면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신축성이 뛰어난 새 가죽부대에 담아 두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 부대를 의미한다.

새 부대란, 시대가 변했으니 그 시대에 걸 맞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사실 예수님은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문화의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우치시고자 새 부대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결국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게 된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트렌드를 해석하지 못한 사람이나 사회는 비교적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며, 심지어 그 자녀들에게까지 그 고통이 이어진다.

크게는 오늘날 북한사회가 그렇고, 이슬람권 세계가 그렇다.

남한에서는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그렇다고 인식되어 있다.

특히 현재 한국 기독교 개신교는 사상적 공격, 사회적 공격,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공격을 받고 있다.

사상적 공격은 인본주의자들로부터 받는 공격이니, 이는 비단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교회들이 받는 공격이니 그렇다 치고.

사회적 공격(세습문제, 세금문제, 대형교회문제, 도덕성 문제)이란 다분히 북한에서 남한 기독교를 공격하기 때문이니 이 또한 정치와 통일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니 논외로 치고.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공격은 다분히 세월이 지나도록 옷을 갈아입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받는 비난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합리성 결여

- 페미니즘; 여성 목사, 여성 장로제도
- 믿음 율법주의; 오직 믿음, 믿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내편.
- 교회분쟁 (큰교회, 작은 교회, 이념 분쟁)
- 이질적 문화
- 강압적 전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 예수천당 불신 지옥=저주 같은 전도
- 기복적 경건생활

아직까지도 70-80년대식 신앙생활을 답습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한국 기독교가 보수적인 이유가 예전의 신앙생활 문화를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한국 기독교가 보수적이라는 판단은 가치관이 전통적이며, 성경적이며, 삶이 십계명 중심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보수관이 중요함.

그렇다면 새 부대가 되는 교회는

시대에 걸 맞는 구도자들에게 친근한 문화가 있는 교회,
 앞서가는 문명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제시해 주는 교회,
 미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비전이 있는 교회이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다니는 교인은 새 포도주가 되어야 하리라.

- 성령으로 충만한 교인 (70-80년대의 때를 벗겨야 함.)
-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교인-성도간에
- 성령의 능력으로 경건생활을 하는 교인
-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인

이런 텃밭에서 혁신이 일어난다.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

18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19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20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전5:18-20)